한국전력공사 신성장동력본부
김병숙 본부장

[학력]

1980 전북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1983 전북대학교 대학원 전기공학 석사
2000 헬싱키 경제대학원 MBA
2008 전북대학교 대학원 전기공학 박사

[주요경력]

2009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익산지점장
2010 한국전력공사 배전건설처장
2012 한국전력공사 기술기획처장
2013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장
現 한국전력공사 신성장동력본부장

Power Interview

'미래 한전의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창조적 싱크탱크!'
이는 지난해 말 한전 조직 개편시 새롭게 출범한 신성장동력본부의 역할과 비전을 한 눈에 보여주는 표현이다. '無'에서 '有'를 창조해 한전이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중책을 맡은 것이다. 한전의 미래를 좌우할 새로운 먹거리를 찾느라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한전 김병숙 신성장동력본부장을 만나 본부의 비전과 올해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 등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2013년 말 한전은 조직을 개편하면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창조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목적으로 기존 기술엔지니어링본부에 ICT 기획, 스마트그리드 사업, 동반성장, 송배전 기기개발 등의 조직을 더해 신성장동력본부로 새롭게 재편했다.

이에 따라 신성장동력본부의 조직은 기술기획처, ICT기획처, 엔지니어링처, 품질경영처, SG&ESS처 등 본사 5개 처와 전력연구원, 설비진단처, 자재검사처,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등 4개 사업소로 구성됐다.

이러한 신성장동력본부의 발족 배경에 대해 수장을 맡고 있는 김병숙 본부장은 "전력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전력산업분야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원가절감 ·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적 설계역량 확보, 미래기술 중심의 창의 기술 혁신 및 품질경영체제 확립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성장동력본부 전 부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월 13일 대전 전력연구원에서 열린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워크숍에서 김병숙 본부장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신성장동력본부가 신성장동력 사업 창출이라는 경영전략의 핵심적인 한 축을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창조적 조직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됐다는 것이 김 본부장의 설명이다.

출범 첫 해인 올해 신성장동력본부의 비전도 단단히 세웠다. 김 본부장은 "올해 2014년은 '청마의 해' 갑오년"이라며 "신성장동력본부는 120년 전 혁신의 바람을 일으킨 갑오경장을 전력사업 분야에서 새롭게 이뤄내자는 취지에서 올해 모토를 '새로운 이슈를 발굴해 선점하는 정책개발 중심의 업무 추진'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성장동력본부는 올해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새로운 이슈로서 마이크로그리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직류설비 증가대응 DC 배전망 도입 검토, 전력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빅 데이터 활용 사업모델 개발, 스마트그리드 확대 보급에 따른 사업전략 수립 등에 박차를 가해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월 11일 태백산에서 진행된 신성장동력 창출 다짐대회.

여기에 계속 사업으로서 에너지저장장치(ESS) 시범사업의 성공적 구축,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추진 및 활성화, HVDC, 해상풍력 등 신성장 핵심 사업 기술의 자립능력 제고, 전력연구원의 혁신을 통한 미래 먹거리 기술 개발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김 본부장은 덧붙였다.

특히, ICT 융합이 강조되고 있는데 대해 김 본부장은 "현재 ICT는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 3.0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도구로 부상하고 있다"며 그 배경부터 설명을 이어나갔다.

단순히 산업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국가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할 미래 경쟁력이자 가치창출의 원천으로서 ICT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본부장은 "ICT와 에너지기술 및 타 분야 기술을 융합해 환경친화, 고령화, 지식미디어, 정보예측 등의 분야별로 새로운 ICT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ICT 융합형 서비스 지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한전의 비즈니스 가치를 극대화 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전력과 IT기술의 대표적인 융합 분야인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대한 전략도 대폭 강화된다. 김 본부장은 "현재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예비사업자로 선정돼 세부 시행방안을 추진 중인데, 향후 예비타당성 심의 결과가 발표되면 사업 준비에 필요한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MI 보급사업과 관련해서도 올해 230만호, 2016년 1,000만호 구축에 이어 2020년까지 2,200만 전 고객을 대상으로 구축을 완료해 지능형 전력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김 본부장은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자발적 수요반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피크 저감을 유도하고 친환경 에너지 효율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SS에 대한 정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올해부터 주파수 조정용 ESS 500MW를 단계적으로 확보해 연간 약 3,000억 원의 전력구입 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본부장은 "제주 조천변전소에 8MWh급 대용량 ESS를 구축해 수요관리, 주파수 조정 등을 실증하고 있으며, 확산사업, 정부 보급사업, 건물 내 ESS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실증 및 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올해부터 다양한 스마트그리드 사업모델 적용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먼저 구리사옥에서 실증을 마친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의 경우 전국 210개 사옥을 대상으로 신재생발전과 소규모 ESS, AMI, 전기차 충전기, 그리고 빌딩자동화시스템(BAS)과 연계된 통합형 비즈니스 모델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제주 가파도에서 실증된 마이크로그리드를 산간오지 지역의 장거리 배전선로 설치를 대체하는 전화(電化)사업용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스마트그리드 종합운영시스템, AMI 운영시스템 등 다양한 시스템도 보완해 기존 전력사업 운영용 설비관리와 업무용 프로그램 등을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성장동력본부가 추진 또는 계획 중인 미래 성장동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본부장은 전력에너지 부문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한전 주도로 사업화해야 할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적이라고 할 만한 것으로 11개 항목을 꼽았다.

김 본부장이 꼽은 11개 항목은 △해상풍력발전 기술개발로 해외시장 진출기반 구축 △이산화탄소 포집 · 저장기술(CCS) 개발로 온실가스 감축 및 미래시장 선점 △저열량탄을 이용한 가스발전(IGCC) 및 합성가스(SNG) 생산 △AMI 선제적 구축 △ESS 보급 및 확산으로 신사업 기반 조성 △마이크로그리드 사업화모델 개발로 해외시장 진출 △HVDC 송전기술 국산화 및 사업화 △저손실 초전도 상용화기술 개발 △직류설비 증가에 대응한 DC 배전망 도입기반 구축 △전력 빅 데이터 활용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동북아 전력계통 연계를 위한 슈퍼그리드 검토 등이다.

김 본부장은 "이러한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지속적이며 역동적인 혁신활동을 통해 R&D분야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새로운 시장 개척 및 활성화 과정에서 관련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가 예상되고 있기에 동반성장 정책 방향도 새롭게 다잡았다고 김 본부장은 전했다.

이와 관련, 김 본부장은 "동반성장 확대 및 글로벌 동반진출을 통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희망 사다리 구축을 위해서는 1회성 행사 위주의 추진방법보다는 '동반성장 문화'를 지속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동반성장 정책의 목표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强小 중소기업 육성'으로 정하고, 핵심부품 국산화 R&D 시행, 품질경영 · 기술개발 지원 확대, KTP(KEPCO Trusted Partner) 인증확대 및 활성화, 해외 상설홍보관 확대, '전력기술 사업화 대전' 개최 등 다양한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全주기 기술 플랫폼 구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김 본부장은 밝혔다.

끝으로 김 본부장은 이러한 신성장동력본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자신만의 경영 방침도 밝혔다. 김 본부장의 경영방침 중심에는 단연 '창조'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런데 김 본부장은 창조에 대해 '관찰-연결-실행'의 과정이라고 언급하며, 각 과정에서 펼칠 자신의 방침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먼저 창조적 발상을 하기 위한 '관찰'을 위해서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 숨어있던 것,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데,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도 있듯이 직원들이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국내외 신기술 동향 파악 같은 것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독려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다음으로 김 본부장은 "'연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적 가치가 사람들을 평가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선별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연결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점"이라며 "따라서 구성원 모두가 열정적이고 창의적이라는 인식의 바탕 위에서 사람 그 자체를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여기고 직원들의 내적인 동기를 극대화하는 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실행'에 대해 김 본부장은 "한전의 꿈나무라 할 수 있는 젊은 직원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새로운 시도를 함에 있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조직문화를 창의적으로 혁신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